

Ⅲ. 최신 환경 단신

1. 환경 정책 동향

◆ 동북아 환경오염 전문가회의 28일 열려 (중앙일보 : 97/07/25)

-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해결과 환경협력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환경오염 데이터 수집 전문가회의'가 7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무부가 25일 발표하였음
- 5개국 참가국과 북한 등 6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는 오는 9월 모스크바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번 회의 결과를 보고 받는 한편 회의사무국과 신탁기금 설치 등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축을 위한 제도적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임

◆ 환경통계 2005년까지 선진화 추진 (중앙일보 : 97/07/30)

- 환경부는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각종 환경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국내 환경통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통계 장기발전계획안을 확정했음
-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통계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통계와 연계를 강화하며 선진화된 국제 통계를 도입해 현재 낙후된 환경통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99년부터 징수 (스포츠서울 : 97/08/01)

- 환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999년 1월부터 매년 1백억원 규모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해 자연생태계보전사업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부과징수금은 전체 사업비의 2/1000 이며, 지난 1995년의 경우 환경영

향평가를 받은 사업규모는 23조원이었음

◆ 환경부, 건축쓰레기 재활용계획서내야 재건축 사업승인 (동아일보 : 97/08/04)

- 환경부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할 경우 건물을 헐어낸 뒤 생기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건축쓰레기의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때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을 4일 마련했음

◆ 작년 환경오염방지 비용 7조원 넘어...韓銀 집계 (중앙일보 : 97/08/12)

-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6년중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은 모두 7조1천7백59억원으로 전년의 6조3천61억원보다 13.8% 증가했고,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1.79%에서 96년 1.84%로 높아졌음
-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3조3천4백42억원(46.6%), 기업은 3조2천6백7억원(45.4%), 가계는 5천7백10억원(8%)을 각각 부담했으며, 기업부담중 2조2천1백3억원은 제조업에, 1조5백4억원은 비제조업에 투입됐음
- 오염매체별로는 수질부문에 3조5천6백34억원, 폐기물처리에 2조2천4백78억원, 대기분야에 1조3백70억원이 각각 사용됐음

◆ 통산부, 폐가전 재활용 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 97/08/20)

- 폐기물의 부피가 크고 처리가 곤란한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폐가전재활용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2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 자원재활용 촉진법 등에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주로 폐플라스틱, 폐지, 폐유리 등 일부 품목에 치우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이 강해 자원재활용단계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환경 기술 동향

◆ 지구온난화 비상.. 청정에너지 개발 발등의 불 (문화일보 : 97/08/01)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지난 6월말 닷새동안 뉴욕에서 열린 유엔환경특별총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회의에서 영국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90년수준보다 20%를 더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15% 더 낮게 방출하겠다고 했음

◆ 현대건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착공 (문화일보 : 97/08/04)

- 경기도 군포시는 4일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산본동 산 170번지 일대 2만여㎡에 하루 2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음
- 군포 쓰레기 소각장은 산본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2백77억원을 들여 건설해, 오는 99년 6월 시험가동을 마친 후 시에 운영권을 넘겨주게 됨

◆ 환경신기술평가제 도입 (문화일보 : 97/08/12)

- 환경부는 12일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환경신기술의 경제성과 타당성, 실용성 여부를 국가가 평가·검증해 공인해주는 '환경신기술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힘
-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환경신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신기술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며, 환경신기술평가는 환경기술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등 수요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폐·하수고도처리기술 ▲폐기물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침출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등 5개 공공분야 환경신기술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됨

◆ 자연형 하천공법 성공 거둬 (연합통신 : 97/08/20)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양재천 3백m 구간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대신 통나무와 야자섬유망 등을 설치하고 하천주변에 갯버들, 달뿌리풀, 물억새, 부들, 갈대 등을 심어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한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단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힘

◆ 북한 신개발 '비닐 충전지' 사용 권장 (조선일보 : 97/07/25)

- 북한은 최근 비닐만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극소형 충전지가 개발되었음을 선전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이 충전지의 제작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비닐 충전지는 전해질이 용액이 아니므로 전해액이 새는 현상이 없고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생산용 재료들은 주위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못쓰게 된 전지는 생활오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장점을 부각 선전했음

◆ 무르만스크 핵폐기물 처리공장 내년 봄 가동 (한겨레신문 : 97/08/13)

- 러시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르만스크에 액체 핵 폐기물 처리공장을 건설중이며 내년 봄에 가동하게 된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일본-네덜란드, 재활용 쉬운 자동차용 합성수지 개발 (한국경제 : 97/08/20)

-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와 세계최대 합성수지 메이커인 네덜란드의 몬텔폴리올레핀이 재활용이 쉬운 자동차용 첨단합성수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함
- 도요타는 재활용하더라도 본래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이 수지를 '도요타·터몬텔'이라는 규격으로 표준화, 2000년 이후 생산되는 신형차의 소재로 활용할 계획임

3. 국제 환경 동향

◆ 일본, 미나마타灣 수은중독 환경 복원 (조선일보 : 97/07/29)

- 미나마타병으로 불리는 수은중독으로 2천2백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灣이 발병 41년만에 “안전성회복”을 선언했음
- 지난 1956년 처음 확인된 미나마타병 사건은 미나마타시의 질소비료공장에서 버린 폐수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이 어패류를 주민들이 먹는 바람에 구마모토, 가고시마현 일대에서 2천2백60명의 수은중독환자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건이었음

◆ 알프스 환경보호 싸고 오스트리아-EU 분쟁 (한국일보 : 97/07/31)

- 대형 화물차들의 배기가스로부터 오스트리아 지역의 알프스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7월 30일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통행세를 대폭 인상하자 유럽연합(EU)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양측간 분쟁이 일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닐 키녹 운수담당위원은 이날 오스트리아측의 조치를 수락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EPA, 오존·미세먼지의 새 기준치 마련 (중앙일보 : 97/08/03)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오존의 건강피해 사례와 함께 오존, 미세먼지의 새 기준치를 내놓았음
- 이에 따라 EPA는 1시간 평균기준치(0.12 ppm)를 폐지하는 대신 8시간 평균농도기준으로 0.08 ppm을 정하고 환경기준 달성여부도 연간 초과횟수 3회미만으로 판정하기로 했으며, 이번 오존기준치의 조정으로 어린이 호흡곤란 위험을 20%까지 줄이고 농작물, 산림피해도 연간 5억달러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독일기업, 폐플라스틱 북한수출 포기 (조선일보 : 97/08/02)

- 독일의 디 벨트지는 독일 합성수지재활용(DKR)사가 폐플라스틱 덩어리 4만5천톤과 폐비닐 8천톤 등 총 5만3천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허가권을 갖고있는 반관반민인 '특수폐기물관리공사'(NGS)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여론의 압력에 밀려 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 미국, 대양·기후변화 조사 우주선 발사 (한국일보 : 97/08/04)

- 미국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대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오비틀 사인언시스사가 제작한 시스타(SeaStar)호를 발사했다고 미항공우주국(NASA)이 3일 발표했다
- 시스타호는 대양을 관찰, 지구 기후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류순환 과정을 파악하고 대양의 색깔을 측정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집적도를 연구할 계획임

◆ 북한, 정무원 37개부서로 축소...환경부 신설 (조선일보 : 97/08/04)

- 북한은 지난해에 식량수급을 담당하는 양정부를 인민봉사위원회 산하로 흡수하는 등 정무원을 종전의 41개부서에서 37개부서로 축소한 것으로 4일 밝혀졌음
- 통일원은 이날 발간한 『주간 북한동향』에서 북한의 『96년판 조선중앙년감』(96년12월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양정부외에도 원자력총국, 해외동포영접총국, 기상수문국, 국가체육위원회 등을 정무원 기구에서 삭제했으며, 지난해 7월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했다고 공식발표했음

◆ 중국, 7만4천개 공해유발 공장 폐쇄조치 (중앙일보 : 97/08/11)

- 중국은 정화시설미비에 따라 7만4천개에 달하는 심한 공해물질배출 제지공장, 피혁공장 및 인쇄공장들을 폐쇄 조치했다고 중국 국가환경보호국(NEPA)이 8일 밝힘
- 신화통신은 NEPA 부국장의 말을 인용, 이들 공해배출공장은 지난 해

NEPA에 의해 폐쇄하기로 된 8만6천개공장 가운데 86%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함

◆ 미국 식품사, 1천 2백만달러 수질오염 벌금 몰어 (한겨레신문 : 97/08/11)

- 미국의 스미스필드 식품사와 2개 자회사가 수질오염으로는 미국에서 사상 최고액인 1천26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됨
- 리치먼드의 한 법원은 지난 8일 스미스필드 식품사와 그 자회사 2개가 버지니아주 스미스필드에서 운영하는 돼지도살장, 식육가공 공장에서 법적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들을 강물로 흘려보낸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음

◆ 한·중·일 98년부터 3국 산성비 공동조사 (중앙일보 : 97/08/14)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공해물질 배출증가로 일본의 산성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환경청은 13일 한국, 중국과 협력, 산성비가 내리는 상황과 원인물질인 유황산화물 등의 배출현황에 대한 공동조사를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하기로 했음
- 3국간 협력내용은 ▲산성비의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을 통일하고, ▲발전소나 공장 등의 원인물질 배출량 등을 계측, 배출상황을 파악하며, ▲중국에서 배출된 물질이 어떤 경로로 한국과 일본에 흘러 들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